

##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본 김수경(金壽卿)

최경봉 (崔炅鳳)

### 国語学史の観点からみた金壽卿

#### 日本語要旨

金壽卿は1940年代後半から60年代末まで、文法論、言語政策論、文体論などをテーマにさまざまな論文と単行本を発表した。彼の研究は当時の主な論争の中心にあるか、あるいは新たな領域を切り開くもので、伝統的な国語学〔朝鮮語学〕の議論を深化し多辺化させるのに極め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本稿では、金壽卿の言語学に関する翻訳物、文法論および文体論に関する論文のうち代表的な4編の論文（『龍飛御天歌』挿入子音攷、『朝鮮語形態論のいくつかの基本的問題に関して（上）』、『朝鮮語形態論のいくつかの基本的問題に関して（下）』、『文風に対する理解をより深化させるために』）を集中的に分析し、彼の研究のもつ国語学史的な意義を明らかにした。

特に本稿では金壽卿の研究を、イデオロギーの時代に生きねばならなかった構造主義者がイデオロギーを意識しながら模索した結果として評価し、北朝鮮国語学の研究の傾向を「ソ連言語学理論の導入と構造主義文法との断絶」として単純化する既存の研究の視角を批判した。このような批判は、南北朝鮮の国語学の研究を包括する国語学史の技術的な可能性と必要性を暗示するものであった。本稿の議論の内容を要約すると、以下の通りである。

2章では、金壽卿が翻訳した「言語学」において採用された用語とそれについての概念的説明を根拠に、構造主義的言語学の分析方法論が当時の北朝鮮国語学会において依然有効であったことを示し、金壽卿の国語学研究を「構造主義的研究方法論と唯物論的言語観の調和」(2.1)、「理論的国語学と実践的国語学の調和」(2.2)として特徴づけた。

3章では、学説史の観点から金壽卿の国語学研究のもつ意義について論じた。3.1では、『龍飛御天歌』挿入子音攷の意義として「挿入子音が生まれざるをえない理由を音韻、形態、意味論の根拠を動員し原理的に説明した点」を指摘した。この議論の過程で「形態部（形態素）」という用語の出現とその概念規定についての研究史的意義を説明した。3.2では「吐〔토〕を単語的性格と接辞的性格を兼ね備えた二重的存在と規定し、独立の品詞として設定」した議論の国語学史的系譜を明らかにし、彼の議論が北朝鮮の標準文法における吐の範疇の設定に与えた影響を論じた。3.3では、金壽卿の文体論研究が北朝鮮文体論の方法と目標を決めるのに与えた影響を指摘し、彼の文体論がバイイ(C. Bally)の表現文体論に「表現効果の向上のための方案」を結合させた実践的文体論である点を強調した。

## 1 서론

이 논문은 김수경의 언어학 관련 번역물, 문법론 및 문체론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하여 그의 연구가 지닌 국어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김수경은 19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말까지 문법론, 언어정책론, 문체론 등을 주제로 여러 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했는데, 그의 연구는 당시 주요 논쟁의 중심에 있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그의 연구가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론에 의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 언어학의 연구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이력을 볼 때, 그는 전통적인 국어학 논의를 심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수경에 대한 연구는 북한 국어학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차원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련 언어학계의 연구물을 번역, 소개하고 이를 국어 연구에 적용한 것을 이념적 측면에서만 평가함으로써,<sup>2)</sup> 그의 연구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에 소홀했던 것은 반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경봉(2009)에서는 김수경의 연구를 번역, 문법론, 국어정책론, 사전학, 문체론, 국어학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그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국어학사적 의의를 개괄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괄적인 연구로서의 한계 때문에 최경봉(2009)에서도 김수경의 연구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연구사적 위상을 명료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경봉(2009)의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 김수경의 연구 중 국어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집중 분석하여 이들의 국어학사적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2장에서는 김수경의 연구 이력과 그의 연구에서 포착되는 언어학적 문제의식을 연결 지으면서 김수경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의 방향과 틀을 정할 것이다. 3장에서는 김수경의 국어학 논문 중 대표적인 네 편의 논문<sup>3)</sup>을 분석·평가할 것이다.

## 2 언어학적 문제의식의 국어학사적 의의

김수경이 활동했던 시기에 사회주의권 국가의 언어학자들은 구조주의 분석방법론과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조화하는 문제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서 언어 분석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언어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인 구조주의는 이념적으로 역

사성과 사회성을 근간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언어학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수경의 연구는 이념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구조주의자가 이념을 의식하며 모색한 연구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김수경의 문제의식을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과 유물론적 언어관의 조화, 이론적 국어학과 실천적 국어학의 조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1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과 유물론적 언어관의 조화

최경봉(2009)에서는 김수경의 1947년 발표논문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에 주목하면서, 이 논문을 구조주의 방법론을 국어 문법 연구에 적용시킨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최경봉(2009)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점은 사이시옷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절차였는데, 이러한 절차적 엄밀성은 당대 연구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과학적 언어 연구의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김수경은 과학적 언어 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국어 현상의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국어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탁월한 외국어 실력과 동경제대 언어학과 대학원에서의 수학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그는 당시 국어 연구의 과학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구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수경의 학문적 이력을 보면 그를 구조주의 이론에 정통했던 연구자로만 평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수경은 소련의 언어학 서적과 논문을 번역하면서 이를 자신의 논의에 적용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유물론적 언어학을 지향했던 북한 국어학계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때 김수경의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그가 1949년에 번역한 「언어학」(아. 아. 레폴마트쓰끼 지)이다.<sup>4)</sup> 남북한 국어학계에 언어학 개론서가 번역되지 않았던 현실과 당시 소련 언어학의 높은 수준<sup>5)</sup> 등을 고려할 때, 이 책의 번역은 과학적 언어 연구 방법론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sup>6)</sup>

「언어학」의 구성 및 내용상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언어 구성단위와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설명에 역사주의적 관점을 덧붙이고 있다.<sup>7)</sup> 이는 언어의 본질을 역사성과 역동성에서 찾으면서도, 문장 및 단어의 구조 분석과 언어 단위에 대한 개념 정립 과정에서는 구조주의적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 김수경이 번역한 「언어학」에서의 개념 설명 사례

음운: “음운이란 형태부 및 어의 구별에 소용되는, 언어의 성음 구조의 단위으로써, 그로부터 언어의 의미적 단위(형태부, 어, 문장)가 구성되는 최소의 요소이다.”(124쪽)

음운체계: “음운이 의미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대립의 덕택이다. 단지 한 개의 표식에 의하여 구별되는 대립을 상관대립 또는 상관이라 부른다.”(126쪽)

변이음: “변이는 언제나 한 개의 음운에 속하며 그 뉴앙스로 나타난다.”(128쪽)

형태소: “형태부는 어사에 있어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다.”(141쪽)

둘째,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음운론과 문법론에 앞서 어휘론 영역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의 어휘론이 구조주의적 의미관계뿐만 아니라 ‘다의성, 은유, 환유, 문맥(맥락)’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휘론을 강조한 것은 ‘단어, 어음, 문법적 범주’ 등을 분석할 때 그것의 문체론적 의의를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역사성과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맥락을 중시한 것은 역사주의와 문맥주의에 기반했던 유물론적 언어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언어학」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본 소련 언어학의 경향성은 북한 국어학계의 연구 경향 특히 김수경의 연구 경향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국어학에서 정립하고자 했던 유물론적 관점은 곧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의 언어 연구였지만, 그것이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sup>8)</sup> 역사주의 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이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일면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sup>9)</sup>을 고려하면 이런 견해를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수경의 연구가 문법론 연구에서 문체론 연구로 확장되고 북한의 국어학계가 문체론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이 소련 언어학계의 흐름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초기 북한 국어학의 전개 과정을 ‘소련 언어학 이론의 도입과 구조주의 문법과의 단절’로 단순화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1950년대 전후 유물론적 언어학에 대한 북한 국어학자들의 인식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물론적 언어학에 대한 현재 남한 국어학자들의 인식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국어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국어학 연구에 적용하려고 했

다. 북한 국어학자들이 소련 언어학에 주목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김수경의 학문적 이력을 보면 그 또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로서 소련 언어학의 새로운 동향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新言語理論’이라 불렀던 소련 언어학자 마르(Marr, Nikolai Yakovlevich)의 언어 이론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선어 학계에서도 마르 이론의 모델을 찾으려 했다.<sup>10)</sup>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글이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sup>11)</sup>이다. 이 글은 60회 생일을 맞는 김두봉의 학문적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었지만, 당시 소련 언어학의 이념적 기반이 된 마르의 언어 이론을 김두봉의 언어 이론과 대비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경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라 언어의 모습과 언어학의 역할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언어 개혁을 지향하는 김두봉의 견해를 마르의 언어 이론에 대응시켜 그 의의를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 이론의 비판으로 촉발된 소련 언어학계의 이념 논쟁이 마무리된 1950년대 중반부터 김수경은 적극적으로 마르 이론 비판에 나섰다.<sup>12)</sup> 이러한 김수경의 행보는 소련 언어학계의 이념 논쟁이 북한 국어학의 방향성 정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언어학」(1949)와 「언어학개요」(1955) 등처럼 마르 이론의 추종기와 비판기에 나온 연구물을 보면 언어 분석 방법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의 이념 논쟁이 언어 분석 방법론이나 언어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들 간에 진행된 언어학의 이념 논쟁을 언어 분석 방법론의 수용이라는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sup>13)</sup>

소련 언어학계와 북한 국어학계가 마르의 언어 이론에 주목했던 것은 전방위적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을 구축해야 했던 시대적 요구에 마르 이론이 부응했기 때문이며, 마르 이론을 둘러싼 언어학의 이념 논쟁도 마르 이론에서 강조했던 언어의 발전 법칙과 이에 따른 언어적 실천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구조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언어의 발전 법칙과 언어적 실천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원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 비판을 곧바로 구체적인 문법 현상의 분석에서 구조주의 분석 방법론을 배척한 것으로 연결 짓는 태도는 북한 국어학계의 흐름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 2.2 이론적 국어학과 실천적 국어학의 조화

김수경의 국어 연구는 1947년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1949년부터 1956년 사이에

발표한 대부분의 논문은 단어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돋보이는 것이었다. 단 이 당시 논의에서는 언어 연구의 실천적 적용을 모색하는 태도, 실천적 적용 양상에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수경은 이론적 연구와 어문규범 문제를 관련지어 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挿入字母의 本質”이란 1949년의 논문은 월북 이전에 발표한 “龍飛御天歌 挿入子音攷”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철자법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임을 밝혔다. 이 점, 최현배의 논의<sup>14)</sup>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 소련 언어학 논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 철자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시 형태주의 철자법을 확립하는 데 사이시옷 문제가 논쟁거리였기 때문이다. 김수경은 1947년 「로동신문」에 3회에 걸쳐 철자법과 관련한 논문을 연재하는데,<sup>15)</sup> 그는 이 논문에서도 頭音 ㄴ, ㄹ의 표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表音主義의 편향을 비판<sup>16)</sup>하고 形態主義 표기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김수경은 언어 이론적 논의를 사전 편찬, 문자개혁 등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토’의 성격 규정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발표한 1956년의 논문,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상, 하)”에서, 김수경은 토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를 소련 언어학계의 논의, 사전 편찬 관습, 띄어쓰기 및 문자개혁 문제 등과 연관 지어 논의하였다. 굴절어에서는 어미 부분을 따로 사전에 올리는 일이 없지만 조선어 사전 편찬에서는 토를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으로 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의 단어적 성격을 강조하거나, 토를 단어로 봐야만 토를 띄어 쓸 수 있고 토와 어간을 띄어 쓰는 것이 풀어쓰기로의 문자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론과 실천을 조화하려는 김수경의 문제의식은 문체 연구로 확장된다. 구조주의 문체론을 기본으로 언어학적 문체론을 체계화하면서 표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이론 체계에 포함하려 한 점도 이론과 실천을 조화하려 했던 사례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구조주의 방법론에 충실한 문법학자이면서도 끊임없이 실천적 국어학을 추구하며 자신의 학문 영역을 확장시켰던 김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3 국어 연구의 국어학사적 의의

김수경이 남긴 연구물을 종합해 보면, 그의 국어 연구는 문법론과 문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국어학사적 위상을 밝히는 논의는 문법론과 문체

론 분야에서의 연구가 지닌 연구사적 의의를 밝히는 일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최경봉(2009)에서는 문법론과 문체론 분야에서 김수경의 업적을 개괄한 적이 있지만, 논의의 성격상 그의 연구를 치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최경봉(2009)의 평가<sup>17)</sup>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의 연구가 당시 문법론과 문체론 논의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며, 국어학의 연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3.1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의 국어학사적 위상

구조주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법 현상을 규명한 연구로 주목할 것은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라는 논문이다. 이는 그가 발표한 최초의 국어학 논문이면서 동시에 그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문<sup>18)</sup>이다. 특히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언어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은 근대적 논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경봉(2009)에서는 이러한 논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 즉 김수경이 어떤 경로로 이 논문의 바탕이 된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과 중세국어 지식을 학습하였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sup>19)</sup>

김수경은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에서 언어 요소의 분포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언어 요소의 형태, 구조, 의미적 특성을 규명하려 했다. 이는 삽입자음의 분포 환경을 제시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삽입자음 ‘ㅅ’이 속격의 ‘의’와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삽입자음의 分布 環境<sup>20)</sup>을 통해 밝혔고, 삽입자음이 결합하는 두 명사의 先行語의 끝이 有聲音(‘母音’, ‘鼻音’, ‘流音’)일 경우에만 나타나는 이유가 同化現象에 의한 有聲音化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일반적인 음운현상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는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을 국어의 형태, 구조, 의미에 대한 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논의는 삽입자음(사이시옷)을 속격표시의 하나로 다루어 오던 관행적 연구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주제별 연구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이시옷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흥빈(1981)에서는 사이시옷 논의가 ‘사이시옷을 속격표시로 보는 견해’와 ‘사이시옷을 음운론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고 한 바 있는데, 김수경의 논의는 사이시옷을 음운론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제시한 논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논의는 삽입자음을 음운론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출발을 알린다는 점에서만 연구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위 논문이 과학적 언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주제별 연구사의 관점이 아닌 국어학사적 관점에서 위 논문의 위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위 논문의 완벽성을 강조하거나 사이시옷 문제를 재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의 논의에서 ‘동화현상에 의한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해 삽입자음이 개입한다’는 설명은 ‘왜 경음화는 받아들이면서 굳이 유성음화를 방지해야 하는 음운론적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으며,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에 삽입자음이 분포한다’는 설명은 ‘고기+배’라는 환경에서 ‘고깃배(고기를 잡는 배)’와 ‘고기배(고기의 배)’로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sup>21)</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삽입자음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음운, 형태, 의미론적 근거를 동원하여 원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규범적 연구와 차원을 달리 하는 점이다.

첫째, 위 논문에서는 대상이 되는 언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삽입자음의 분포 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구조주의 방법론의 특징 중 하나가 언어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보여준 분석 방식은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둘째, 우리말에서 유성폐쇄음이 음운이 아니라는 점에 기반하여, 삽입자음을 통해 유성음화를 저지해야 하는 음운론적 이유를 원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고기(koki > kogi)의 예를 제시하면서 우리말에서는 유성폐쇄음 [g]가 오직 동화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변이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단어의 첫 음절에 유성폐쇄음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합성어 구성에서 뒤에 오는 어근이 단어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면 당연히 유성음화에 저항할 것이고 유성음화를 저지하기 위해 삽입자음이 개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김수경은 음운론적 현상의 원인을 형태·의미론적 측면에서 찾아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의 수준이 언어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셋째, 위 논문에서는 삽입자음의 출현을 속격 표시 현상이 아닌 음운론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삽입자음이 포함된 구성을 속격 구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논문에서는 “삽입자음이 아닌 語辭의 順列 즉 意義部<sup>22)</sup>의 상호 위치가 종속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부<sup>23)</sup>”라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문법적 기능을 특정 형태소에 대응시켜 설명하지 않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위치에 대응시켜 설명한 것은 문법형태소의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가 문법 현상으로 발현된다고 봤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때 김수경이 문법형태소를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 사실을 단어 형태를 단어 간의 상호 관계의 결과로 넓혀 봤던 논의와 관련지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그의 1956년 논문에서 구체화되는데, 그는 “넓은 의미에서의 형태는, 단어 자체의 형태의 변화 이외에, 단어들 사이의 호상 관계, 단어들의 결합, 단어 결합에서의 단어들의 순서 등등을 포괄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이러한 형태는 개별적으로 본 단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명사, 형용사, 동사의 문법적 범주가 토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표현됨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주장은 같은 논문에서 김수경이 인용한 방광도(方光燾)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sup>25)</sup> 김수경이 인용한 방광도의 견해는 “나는 단어들의 호상 관계, 단어들의 결합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형태라고 인정한다. 개별적인 중국어의 단어의 고유의 형태는 적기 때문에 품사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넓은 의미의 형태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이다. 방광도가 고립어인 중국어의 형태론을 논할 때는 문법형태소의 개념을 넓혀 보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김수경은 문법형태소의 개념을 넓혀 보는 관점이 우리말 문법 범주의 특징 특히 토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그가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모든 언어 요소(단어의 순서, 단어 간 상호관계, 영형태소까지 포함)를 일관되게 형태소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논의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주의 언어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3.2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상, 하)”의 국어학사적 위상

1950년대 이후 김수경이 발표한 논문 중 문법론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상, 하)”이다. 당시 북한 국어학계는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는데,<sup>26)</sup> 이때의 논의는 교착어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수경의 연구는 당시 진행된 토 논의에서 주요한 축을 이루었다.

그는 단어의 구조를 語根, 接頭辭, 單語造成的 接尾辭, 形態造成的 接尾辭(相, 時稱, 尊敬을 나타내는 것), 토(格, 法, 階稱을 나타내는 것)로 분석하였고, 토를 형태조성의 접미사와 구분하여 단어의 문장론적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적 형태부’로 보았다. 그리고 토를 단어적 성격과 접사적 성격을 겸한 이중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품사 분류 유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김수경의 견해는 토를 품사에 포함시킨 최현배의 견해와 유사하지만, 토의 범위를 조사만이 아니라 어미까지 포괄한다고 봤다는 점에서 최현배의 견해와 대조된다. 둘째, 김수경의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렬모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정렬모가 토를 단어가 아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로 봤다는 점에서 그

와 대조된다. 셋째, 김수경의 견해는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시경과 유사하지만, 주시경이 조사와 어미를 기능에 따라 ‘것(-는, -ㄴ, 이, 가, 을 등), 잇(-고, 와 등), 꺾(-다, -어라 등)’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그와 차이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김수경의 형태관은 주시경의 형태관을 잇고 있지만, 품사 분류에서 주시경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수경의 견해는 이후 북한의 형태론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의 토논의가 토의 교착적 성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어문법」 1(1960)<sup>27)</sup>에서는 이전의 문법서와 달리 토를 독립 품사가 아닌 문법적 접사로 분류함으로써, 토의 범주에 관한 한 김수경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문법」 1(1960)에서 문법적 교착 요소들을 모두 문법적 접사로 분류하면서도 이를 다시 토와 형태조성접미사로 구분하는 것을 볼 때, 두 범주의 기능적 차이에 주목했던 김수경의 견해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문법」(1964)에서는 문법적 교착 요소들을 모두 토로 보고 있지만, 토를 ‘위치토’와 ‘비위치토’로 구분함으로써, 이 역시 토와 형태조성접미사를 기능적 특성에 따라 위치적 형태부와 비위치적 형태부로 구분한 김수경의 견해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결국 1964년의 문법서를 통해 조정된 견해는 토를 ‘자리토’와 ‘끼움토’로 구분하는 현 문법 체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북한 표준 문법에 나타난 형태 분석의 입장은 “위치적인것과 비위치적인것을 이질적인것으로 가르는데가 아니라 모두 토의 범주속에 넣고 위치토와 비위치토로 구별하”(김영환 2004)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떠나 문법적 교착 요소들 간의 기능적 차이에 주목한 김수경의 견해가 형태 분석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위 논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품사를 보는 관점과 문법형태소를 보는 관점의 독특함이다. 김수경이 품사를 분류하는 기본적 관점은 문법형태소에 대한 관점과 연동되어 있다. 품사를 보는 관점은 토의 성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수경은 단어의 범주를 우선 의미론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종래의 품사 부류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의미론적 유형은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분되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는 어휘적 의미를 지닌 품사, ‘관형사, 부사’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융합된 품사, ‘토’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품사로 구분된다. 결국 전통적인 품사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지만, 이러한 관점은 ‘토’의 성격 및 범주 규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 (2)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 문제에 관하여 (상)”에서의 설명 내용

특별히 토의 형태론적 기능과 관련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 조선어의 토는 명사(수사, 대명사를 포함하여), 형용사, 동사에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위의 설명은 의미론적 유형에 따라 품사를 구획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어휘적 의미를 갖는 ‘명사, 형용사, 동사’가 하나의 의미론적 유형으로 분류된다면, 문법적 의미를 갖는 토는 이 세 품사에 동일하게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수경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이어나간다.

## (3)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 문제에 관하여 (상)”에서의 설명 내용

만일 조선어 동사에 시칭, 법, 계칭 등의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와 동일한 문법적 표현 수법이 형용사에도 있으며 또한 명사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명사, 동사, 형용사에 붙는 문법형태소의 성격을 동일하게 보는 태도는 문법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다’의 성격 규정과 문법적 자립성에 대한 판단은 주제별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첫째, 김수경은 ‘이다’의 ‘지정사’설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는 ‘동사, 형용사’에 ‘-다’라는 ‘토’가 결합하듯이 ‘명사’에도 ‘-다’라는 ‘토’가 쓰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다’를 토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이다’를 명사에 붙는 토 ‘-다’의 변종 즉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면서 ‘지정사설’을 반박했던 것이다.

둘째, 김수경은 명사를 자립적 형태소로 보고 동사와 형용사를 의존적 형태소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데, 이 비판은 명사, 동사, 형용사를 어휘적 의미를 갖는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소가, 소를, 소다’ 등에서의 ‘소’와 ‘늡다, 늡고’ 등에서의 ‘늡’이 같은 의미적 단위이기 때문에 이는 모두 자립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sup>28)</sup>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를 ‘감들다, 걸잡다, 오가다, 검불다, 검버섯, 알보다’ 등과 같이 용언 어근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찾고 있다.<sup>29)</sup> 이런 관점에서는 선행 단어의 자립성을 근거로 명사에 붙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토(조사와 어미)가 단

어와 문법형태소의 두 가지 특성을 겸한 준자립적 존재이고, 명사, 동사, 형용사의 문법적 범주가 토의 도움을 얻어 표현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의 관점과는 다른 점이 많지만 의미론적 유형에 따라 품사를 구분하는 견해나 단어의 형태가 단어 간 상호관계를 포괄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우리말의 토 논의를 심화한 것은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견해가 주시경의 논의와 일정 부분 맞아 있는 것도 국어학 연구의 계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3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위하여.”의 국어학사적 위상

남북한 국어학계는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체론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 공히 문체론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李仁模(1960)이 남북한 국어학계에서 처음 출간된 문체론 단행본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수경(1964)가 처음 출간된 문체론 단행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문체론의 접근 방법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인모(1960)에서는 小林英夫(1944)의 접근 방법과 같은 문제의식을 보이는 문체론이다. 그 특징은 문체론의 과학화를 지향하되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관련한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sup>30)</sup> 문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작가의 개인문체이며, 문체 연구 또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학 작품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데에 언어학적 방법론에 의한 문체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문학에서의 문체론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수경(1964)는 개인의 창조적 문체보다는 상황에 따른 언어 표현으로서의 문체 문제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수경의 문체 연구가 문풍의 정립을 목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문체론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한’ 구조주의자 바이이(C. Bally)의 ‘표현문체론’과 같은 지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 「조선어문체론」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수경 문체론의 특징을 상세히 밝히는 건 한계가 있다. 다만, 김영황·권승모 편(1996: 212)에서 “이 책은 언어실천과학으로서의 문체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물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하여 조선어문체론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한 평가를 참조하여 김수경 문체론의 지향점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이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위하여.”(「조선어학」 3호, 1963)라는 그의 논문이다.<sup>31)</sup>

문풍(文風)의 정립이란 문제는 북한 문체론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때

문풍은 개인적인 문체가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에서의 문체를 의미하는데, 문풍에 대한 고민이 북한 문체론을 활성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건 북한 문체론의 방법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어학전서 중 「조선어문체론」에서는 “문체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 체계이고 표현적 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체계로서 그러한 문체론적수단과 문체론적수법의 체계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체계인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굳어지고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된 현실적인 체계이다.”(23쪽)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문체론이 글의 기능, 표현적 효과, 표현의 사회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의 개성적 문체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 문체론에서 주변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 문체론이 바이이의 표현문체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위 논문의 설명 내용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 (4) “문풍에 대한 리해를 더욱 심화하기위하여.”에서의 설명 내용

언어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교제의 수단으로 리용되는 만큼 그 교제의 분야, 교제의 조건, 교제의 목적, 진술의 내용, 대상의 특성 등등 매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언어 수단들을 선택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그러면 우리의 언어 실천에서 매개의 구체적 정황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의 언어 교제가 진행되는 장면, 조건에 따라 언어 행위의 구체적 발현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 주목하여 최경봉(2009)에서는 김수경의 문체론은 소통을 위한 랑그(langue)로서의 문체를 분석하여 언어의 표현 효과를 기술하고자 한 구조주의자 바이이(C. Bally)의 ‘표현문체론’과 같은 지향점을 갖는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진중화(2004)에서 번역한 바이이의 다음 언급을 위의 김수경의 언급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5) 바이이의 문체관

우리 연구에서 본질적으로 문체론적인 부분은 표현 사실의 정감적 성격들, 이를

산출하기 위해 랑그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들, 이 사실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관계들, 요컨대 이들의 요소인 모든 표현 체계들을 포함한다. (진중화, 2004)

더구나 1964년에 발표된 “최근의 정론들에 나타나고 있는 회화체의 요소”(「조선어학」 5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체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는 김수경 문체론과 바이이 문체론의 관련성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준다.<sup>32)</sup>

그런데 바이이와 김수경의 차이는 김수경이 記述的인 표현문체론에 ‘표현 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를 실천적 문체론으로 전환시킨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풍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다면 김수경은 바이이의 문체론이 배제하고자 했던 수사학적 기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경은 위 논문에서 ‘언어 행위의 구체적 정황, 언어 수단의 표현성’ 등과 같이 언어학적 문체론과 관련한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언어 실천에서 당적이며 인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문제와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제 등과 같이 실천적 문제에도 주목했다. 당적이며 인민적인 입장을 견지, 혁명 수행에 절실한 내용의 전달 등은 곧 수사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수경의 「조선어문체론」은 한 구조주의자가 어떻게 실천적 국어학을 체계화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金壽卿의 「조선어문체론」을 직접 검토할 수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를 후고로 미룰 수밖에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sup>33)</sup>

#### 4 결 론

본고에서는 김수경의 언어학 관련 번역물, 문법론 및 문체론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하여 그의 연구가 지닌 국어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그리고 김수경의 연구를 이념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구조주의자가 이념을 의식하며 모색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북한 국어학의 연구 경향을 ‘소련 언어학 이론의 도입과 구조주의 문법과의 단절’로 단순화하는 기존 연구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남북한 국어학 연구를 아우른 국어학사 기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김수경이 번역한 「언어학」에서 채택한 용어와 이에 대한 개념 설명을 근거로 구조주의 언어학의 분석 방법론이 당시 북한 국어학계에서 여전히 유효했음을 보였고, 김수경의 국어학 연구를 ‘구조주의 연구 방법론과 유물론적 언어관이 조화’(2.1), ‘이

론적 국어학과 실천적 국어학의 조화'(2.2)로 특징화하였다.

3장에서는 學說史의 관점에서 김수경의 국어학 연구가 지닌 의의를 설명하였다. 3.1에서는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의 의의로 ‘삽입자음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음운, 형태, 의미론적 근거를 동원하여 원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이 논의 과정에서 ‘형태부(형태소)’라는 용어의 출현과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의 연구사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3.2에서는 ‘토를 단어적 성격과 접사적 성격을 겸한 이중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한’ 논의의 국어학사적 계보를 밝히고, 그의 논의가 북한 표준문법에서 토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3.3에서는 김수경의 문체론 연구가 북한 문체론의 방법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거론하면서, 그의 문체론이 바이이의 표현문체론에 ‘표현 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결합시킨 실천적 문체론임을 부각하였다.

#### 주

- 1) 필자는 국어학사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연구를 포괄하여 기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학'과 '한국어학사'가 아닌 '국어학'과 '국어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김수경을 유물론적 언어학으로 상징되는 소련 언어학을 도입해 북한 국어학을 정립했던 인물로만 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 3) 1947.05. “龍飛御天歌 插入子音攷.” 「震檀學報」 15.  
1956.02.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상).” 「조선어문」 1호.  
1956.04.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하).” 「조선어문」 2호.  
1963.08. “문풍에 대한 리해를 더욱 심화하기위하여.” 「조선어학」 3호.
- 4) 원저는 1947년 발행된 레폴마트쓰끼(A. A. Реформатский)의 *Введение в языковедение* (언어학 개론)이다. 이 책은 1967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왔을 만큼 소련 언어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5년에 나온 첫 개정판에서 대폭 개정된 부분은 마르 이론을 소개했던 6장(세계의 언어와 그 분류)이다.
- 5) 프라그학과로부터 구조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프라그학과의 주축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1920년대 후반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소련 학계에서 퇴출되었지만, 이들에 의해 발전된 구조분석 방법론마저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 6) 이 책은 대학의 교재용으로 번역된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기술 내용과 번역된 문법 용어는 북한의 국어학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참조될 수밖에 없었다.
- 7) 한 예로 품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부가 설명을 덧붙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품사는 결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적 범주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언어와 시대에 의하여 제약되는 역사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172쪽)

- 8) 김수경이 번역한 「언어학」은 1953년 마르 이론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출판이 중단되고, 1955년 유응호에 의해 새로운 언어학 개론서인 「언어학개요」가 번역·출간된다. 이는 당시 소련 언어학 개론서 번역의 정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 마르의 견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면 두 책에 제시된 언어학 연구의 목표와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 9) 구조주의 언어학은 역사주의 언어학에 대한 반동이었지만, 역사주의의 관점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를 전제된 상태에서 언어의 공시적 체계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 10) 우리말을 연구했던 마르크스주의자 중 신남철, 홍기문 등은 1930년대부터 소련 언어학의 동향에 관심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소련 언어학자 마르의 이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최경봉(2012)를 참조할 수 있다.
- 11) 이 논문은 1949년 6월에 「조선어연구」 1-3에 게재되었다.
- 12) 「이.웨.쓰딸린의 로작에 비추어 본 언어학의 제 문제」(각 대학 어문 학부용/ 1952년 모스크바 대학에서 간행한 것을 번역)와 「쏘웨트 언어학의 제 문제」(번역 논문집/ 과학아카데미 학술회의 자료집에 발표된 것들을 번역 편집한 것)은 각각 1954년과 1955년에 잇달아 출간되었는데, 이 서적 출판의 주요 목적은 마르 이론을 비판하고 스탈린의 언어이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김수경은 전자 서적의 심사자였고 후자의 서적에서는 “언어학의 문제들에 관한 이.웨.쓰딸린의 로작이 사회 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 “언어학에 있어서의 비교 역사적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언어학에 관한 이.웨.쓰딸린의 로작에 비추어 본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민족어에 관하여” 등 3편의 논문을 번역하였다.
- 13) 고영근 외(2004: 21)에서는 “옛 동독에서 나온 언어학 서적을 보면 항상 바닥에는 유물론을 깔고 있으면서 언어의 구조를 탐색하는 방향의 서술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유물론과 같은 이데올로기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근 외(2004)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 14) 김수경과 최현배의 논의는 사이시옷을 ‘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데에서는 공통적이나 최현배(1937)에서 사이시옷을 문법적인 접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수경의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 15) 이 논문은 “朝鮮語學會 <한글맞춤법통일안> 중에서 改正할 몇가지 其一漢字言表記에 있어서 頭音 ㄴ 及 ㄹ에 대하여.”(「로동신문」 1947.06.06-06.08.)인데,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위원회 제7차회의 자료」에 재수록되었다.
- 16) <한글맞춤법통일안>과 외래어표기법의 근본 원칙에 근거한 비판, 각 언어의 양상을 실례로 한 비판, 한글 학습의 관습을 근거로 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 17) 최경봉(2009)에서는 김수경을 ‘구조주의 방법론에 의거한 연구를 선도하고 북한의 초기 표준문법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국어학자’, ‘문체론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국어학자’ 등으로 평가한 바 있다.

- 18) "龍飛御天歌 挿入子音攷는 이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 논문을 능가하는 글이 없을 만큼 훌륭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2000년 8월 19일자 한국경제 기사문)는 동시대인(金敏洙)의 평가를 통해서도 이 논문으로 상징되는 김수경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 19) 최경봉(2009)에서는 경성제대 언어학 강좌와 교수진에 대해 살펴보며 小林英夫로부터의 영향에 주목한 바 있다. 최경봉(2009)에서는 김수경의 동경제대 언어학과 유학 사실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동경제대 언어학과에서의 학습 또한 小林英夫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20) 삼입자음이 속격을 나타내는 조사 ‘의’와 중복되어 사용되고, 삼입자음이 결합하는 두 명사의 先行語의 끝이 有聲音(‘母音’, ‘鼻音’, ‘流音’)일 경우에만 나타난다.
- 21) 임홍빈은 사이시옷이 유성음화에 의하여 약화될지도 모르는 제2요소의 두음을 경음화하여 그 변별성을 높인다는 논의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하면서, 유성자음이나 무성자음의 음운론적 인식이 동일하다는 점, 형태소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은 오히려 경음화 쪽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일한 환경 내에서 음운 현상이 달리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 22) 현대 북한 국어학계에서는 분석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이루는 최소단위를 형태부라고 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단위를 의미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국어학계에서 형태소를 구성소와 형성소로 구별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구분 방식이 이미 김수경(1946)에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단, 김수경(1946)에서는 문법적 형태소를 가리킬 때 형태부란 용어를 사용하고, 어휘적 형태소를 가리킬 때는 의의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 23) 북한 국어학계에서 형태부는 형태소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는 김수경은 1946년 발표한 논문에서 형태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49년 김수경이 번역한 「언어학」(아.아. 레플마르스키 저)에서도 ‘형태부’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국어학계에서 사용하는 형태부란 용어의 개념은 1946년 김수경의 논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4) 이 논문은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하)" 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가 하나의 품사로 단어적 성격을 지녔음을 주장했는데, 이는 토가 단어의 굴절 형태로 나타난다는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김수경은 단어의 내적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형태소 이외에 단어들 사이의 상호 관계도 넓은 의미의 형태임을 강조했다. 단, 이 논문은 "조선어 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하)" 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가 하나의 품사로 단어적 성격을 지녔음을 주장했는데, 이는 토가 단어의 굴절 형태로 나타난다는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김수경은 단어의 내적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형태소 이외에 단어들 사이의 상호 관계도 넓은 의미의 형태임을 강조했다.
- 25) 방광도(方光燾, 1898-1964)는 구조주의 언어 이론을 중국어 분석에 적용한 대표적인 언어학자이다. 30년대 중국어학의 체계화에 기여했으며, 중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어학의 이론적 발전을 선도하는 언어학자로 활동하였다. 김수경이 인용한 방광도의 논문은 중국 품사 논쟁을 일단락한 논문으로 문법형태소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의 특성상 단어 내부의 형태 변화가 아닌 단어들의 상호 관계와 그들의 결합상에 근거하여 품사를 분류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26) 1958년 “조선어형태론의 특성에 대한 학술토론회”와 1963년 “조선어문법구조연구에서 주

- 체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학술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토의 성격 문제였다.
- 27) 김수경은 「조선어문법」(1960)의 형태론 부분을 리근영과 함께 집필하였다.(김영환·권승모 편, 1996: 348 참조.)
- 28) 명사와 용언의 분포적 차이를 ‘동사와 형용사가 항상 일정한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에 명사에 비하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 주시경이 「말모이」에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만을 등재한 것을 보면 주시경 또한 김수경과 같이 동사와 형용사 어간을 명사처럼 하나의 의미적 단위로 이해했을 것이다.
- 29)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지만, 김수경은 의미적 관점에서 어근의 자립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체계 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 30) 이인모(1960: 53)에서는 문체를 “문체란 작가의 미적 이상에 적합하며 개성이 잘 반영된 일정한 구조의 문장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 31) 문체론과 관련된 김수경의 연구는 이외에 “최근의 정론들에 나타나고 있는 회화체의 요소”(「조선어학」5호, 1964), “작가의 개성과 언어”(「문학연구」3호, 1964) 등이 있으나, “문풍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하여”(「조선어학」3호, 1963)가 복한 문체론 연구의 동기와 김수경 문체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2) 김수경은 이 논문에서 회화체의 보편적 특성을 문장론적, 형태론적, 어휘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문체론 연구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화체와 서사체를 가르고 그들의 특성을 밝힌 다음 매개의 구체적인 말과 글에서 회화체와 서사체의 비률이 어떠하며 그들의 배합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는 것은 우리말의 현 상태를 밝히며 그 역사적 움직임을 엿보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문체론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3) 1964년(김수경이 「조선어문체론」을 발간한 해)을 전후하여 발표한 김수경의 문체론 관련 논문과 1964년 이후 출간된 북한의 문체론 서적의 구성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어문체론」(1964)의 구성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후고에서는 서구 및 일본 문체론과의 연관성, 1964년 이전 발표 논문과 「조선어문체론」의 연관성, 1964년 이후 출간된 북한의 문체론 단행본과의 연관성, 남한에서 출간된 문체론 단행본과의 차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姜信沆(1996) 「國語學史」(增補改訂版) 서울: 普成文化社.
- 고영근 외(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서울: 박이정.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 고영근(2001) 「한국의 언어연구」 서울: 역락.
- 과학원(1954) 「쏘웨트 언어학의 제문제」(번역 논문집) 평양: 과학원.

- 교육도서출판사(1955) 「이.웨.쓰말린의 로작에 비추어 본 언어학의 제 문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金敏洙 編(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권 서울: 녹진.
-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 金敏洙(1990) “朝鮮語學會의 創立과 그 沿革.” 「周時經學報」 5. 50-74.
- 김영환(2004) “조선어토의 문법적처리와 문법교육의 효율성 문제.” 「이중언어학」 24. 9-19.
- 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박각수 편저(1994) 「국어 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 小林英夫(1944) 「文體論の美學的基礎づけ」 東京: 筑摩書房.
-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5-32.
- 李仁模(1960) 「文體論」 서울: 東華文化社(宣明文化社, 1974).
- 이준식(2002)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1. 191-218.
- 李忠雨(1980) 「京城帝國大學」 서울: 多樂園.
- 任洪彬(1981) “사이시웃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國語學」 10. 1-35.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정 광(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서울: 제이엔씨.
- 진종화(2004) “수사학과 문체론의 관계를 Charles Bally의 문체론.” 「수사학」 1. 180-200.
- 최경봉 외(2007)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채록 자료)¹.
- 최경봉(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어국문학」 142. 431-463.
- 최경봉(2008) “일제 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지향.” 「한국어학」 40. 127-148.
- 최경봉(2009) “金壽卿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어학」 45. 363-385.
- 최경봉(2012) “국어학사에서 柳應浩의 위상과 계보.” 「한국어학」 54. 291-324.
- 최호철(2002) “자료 발굴과 소개: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한국어학」 17. 357-384.
- 胡裕树 等(2003) 「方光焘与中国语言学」北京: 北京语言大学.

